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① 돈황에서 찾은 불교신앙 3

중국인 닮은 불상 나타나기 시작

중국의 초입에 위치한 돈황은 중국과 서역 사이에 걸쳐진 매우 재미있는 도시다. 이러한 중국과 서역의 사이에서 동아시아로의 불교신앙 유입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돈황 막고굴 초기 모습은 규모는 작지만 역동적이다. 막고굴에서 보이듯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은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다. 이러한 변화는 동양왕(東陽王)이라는 인물과 관계가 깊다. 무주성력원년비(武周聖歷元年碑)에는 돈황 석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낙준과 법양이 불교를 포교하기 시작하였으며, 건평 동양공이'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서방풍의 불상이 아닌 중국인을 닮은 불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막고굴의 중국화는 돈황이 중국화의 시발점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변화가 돈황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그 의미가 깊다. 이 시기에는 불상의 종류가 매우 단순하다. 거의 석가모니불이 주를 이루며 무량수불과 미륵보살상들이 가끔 등장할 뿐이다. 하지만 이 시기 돈황 석굴의 벽화에는 보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부처님 전생담이 대형 벽화를 통해 표현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중국 고대신화인 복희와 여와씨를 비롯해 도철(머리만 있는 괴수) 등이 불교적 색채를 띠고 등



돈황 막고굴 285번 굴은 승려들이 수행과 생활을 병행한 승원굴인 비하라형 석굴로 널리 알려졌다. 285번 굴은 인도풍의 비하라형 석굴이지만 내부 천장에는 중국 설화가 가득하다. <중국대륙의 문화> 3권, 한연출판사 p.97에서 전제.

유적을 조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장경동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문서에도 동양왕과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 동양왕의 이름은 원영(元榮, 북위시대 황실의 성)으로 북위시대 효창연간(525년)에 과주자사(瓜州刺史)로 봉해져 약 20여 년 간 돈황 지방을 지배했다. 이 시기에 동양왕은 서역 본토에서 승려들을 불러들여 석굴을 많이 개착한다. 그 이후 북위가 멸망한 뒤에도 그의 자손들이 석굴을 지속적으로 개착해 천불동(千佛洞)을 이루게 된다. 이 시기의 돈황 막고굴은 이전 시기의 초기 석굴 양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형태의 중국화와 함께 안에 위치한 불상들이 중국인의 옷을 입게 되는 시기가. 중국 북위 황족들은 그들이 가진 이민족이라는 굴레를 벗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본인들의 성을 중국식으로 바꾸고 웃도 중국식으로 바꿔 입었다. 그들은 불상에도 중국식의 복장을 입힌다. 소위 말하는 화화양식(華化樣式)이다.

장한다. 일각에서는 복희와 여와가 불교 안에서 새로운 보살로 자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중국으로 들어온 불교가 중국화돼 가는 과정이다. 중국화의 과정은 비전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불교가 인도로부터 중국에 전해질 때 비전상도 함께 전해졌다. 원래 인도의 비전상은 무서운 나찰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반해 중국에 오며 중국 고유의 신선사상과 결부되며 선녀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돈황 막고굴의 비전상은 이런 선녀와 신선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교의 중국화는 동아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상계와 신선 등 우주관이 불교 안에서 다시금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단순한 평면적인 벽화가 아니라 연속된 이야기를 화폭에 담아낸 중국벽화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문무왕(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이야기

49 불갑사 꽃무릇

미완성인 꽃 장사에는 슬픈 얘기 남아있고, 장사 너머엔 옆으로 앉은 부처님이 계신다. 불갑사 불갑사. 꽃무릇 가득 피어있는 줄도 모르고 갔다가 가을 바람 들어 왔던 작년 여름. 동구부터 붉게 물든 불갑사 길엔 벌써 가을이 와있었다. 잎이 지고 나야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야 잎이 난다. 꽃은 잎을 보지 못하고, 잎은 꽃을 볼 수 없어서 상사화(相思花)라 부른다. 우리는 저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꽃무릇이 그렇게 피는 것도 그렇고, 죽는 날까지 부처님 전에 앉아 묻고 또 묻는 일도 그렇다. 작년엔 가을이 빨리도 왔었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11도 불광명조무량국성문등계장엄

이 삽화는 아미타불에 대한 설명으로 제13도까지 이어진다. 그림을 살펴보면 높은 대좌에 앉아 합장하고 있는 아미타불과 그 왼쪽에 5명의 성문종과 오른쪽에 2인의 천인이 시립하고 있다. 본존 주위에는 여러 가닥의 많은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는 본문 중에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무량하여 사방세계를 비추어도 그림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이 도상은 7번째의 목판 원판 전반부의 일부와 후반부의 2/3까지 이어져 있다. "사리불아, 네 뜻에는 어떠한가? 저 부처님을 어떤 까닭에 아미타라고 이름하셨는지 아는가? 사리불아, 저 부처의 광명이 한량없이 사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조금도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아미타이니라. 저 사리불아, 저 부처의 목숨과 그 곳의 사람의 수명이 무량(無量: 헤아릴 수 없이 많거나 끝이 없는 수), 무변(無邊: 끝이 없고 가이 없음), 아승지겁(阿僧祇劫: 셀 수 없이 많은 수)이므로, 이름이 아미타이니니라." (舍利佛 於汝意云何 彼佛號阿彌陀 舍利佛 彼佛光明 無量 照十方國 無所

障礙 是故 號爲阿彌陀 又舍利佛 彼佛壽命 及其人民 無量無邊阿僧祇劫 故名阿彌陀) 이 본문을 간추려보면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과 수명이 한량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 혹은 무량광불이라고도 부른다. 그 이유를 <무량수경>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무량수경>에서 처음으로 법장보살이 성불한 후의 명칭으로 '무량수불'이라는 명호가 나온다. 아미타불은 광명이 모든 부처님 가운데 최고이고, '무량광불'이라는 명호를 위시해서 '무변광불' '무애광불' 등 12광의 별칭이 있으며, 그 무량한 광명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여 해탈의 길로 이끈다. 또한 아미타불은 수명이 무량하며 극락정토에 있는 성중들도 마찬가지로 수명이 무량함을 말한다. 이것은 법장보살구의 48원 가운데 제 12원인 '광명무량의 원'과 제 13원인 '수명무량의 원'을 성취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아미타부처님이 제12원인 '광명무량의 원'을 서원한 것은 사방세계 모든 불국토의 중생들을 다 구제하기 위한

이다. 제13원인 '수명무량의 원'을 서원한 것은 사방세계 현재의 무수한 중생은 물론 미래의 중생들까지 모두 구제하기 위해서다. 이 두 가지의 원으로 인해 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미타유스 Amitayus(무량수)' '아미타바 Amitabha(무량광)'라는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린다. 아미타불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은 시간적인 영원성을 상징한 것이고, 광명이 무량하다는 것은 공간적인 제한을 초월함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불자들도 이제 아미타부처님의 서원을 믿고 아미타부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구제의 손길을 아낌없이 받아 들여 이 사바세계가 불국정토가 될 때까지 그 손길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고관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11도 불광명조무량국성문등계장엄(佛光明無量國聲聞等界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쪽(半部) 28.2×21.0cm.

정성들여 만든 불교달력 주문하시면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불서보급 37년 전통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판매합니다. 달력 1~40호 {국6절·12절·미니·다이어리·한지·탁상}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 등록증, 인쇄소 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buddhashopping.com

Product catalog for Buddhist calendars and items. Includes a table of prices for various calendar types (e.g., 12월 1,100원, 국6절 1,900원) and a list of items like '3호 붓다의 메아리', '17호 복 많이 받으세요', '15호 반야심경', '14호 반야동자', '20호 홀로있는 시간', '29호 들에도 꽃이피네 (미니)', '25호 동승일기'. A '동진기획·붓다쇼핑'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are also present.

Advertisement for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World's first meditation cushion). Features a diagram of the 'Giban' cushion, a list of prices (VIP형 49,000원 → 44,000원,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and a phone number: 02)2004-8216. The text describes the cushion's ergonomic benefits for meditation.